진안군, 도시가스 공급 박차

한국가스공사 사업시행자 입찰공고 9월말 선정

진안군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전북도, 한국가스공사, (주)군산도시가스와 체결한 4자간 협약에 따라 2018년 10월까지 진안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 20일 조달청에 "임실~진안 주배관공사" 사업시행자 입찰공고를 시행하여 9월말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 500억원 규모로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임실군 성수면에서 진안군 진안읍까지 25㎞ 구간에 직경 20인치의 주배관설비와 공급관리소 2개소를 설치한다.

진안군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군산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하는 주배관 건설공사 일정에 맞춰 주요 시설과 일반 가정으로 연결되는 20㎞ 구간 공급배관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주배관 공사 구간에 설치되는 공급관리소는 천연가스 저장소가 아닌 고압의 천연가스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압력을 낮추는 시설로 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 단지 주변 등에 설치되고 있어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시설이다.

이항로 군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가스공사,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그린빌리지사업, 마을 바꾸다

주민 화합 · 단결 이끌어내

진안군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 마을을 바꾸고 있다.

올해 15개 마을이 참여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심사 결과 최우수마을에 정천면 하초, 우수마을에 진안읍 소토실, 장려마을에 진안읍 활인동 마을이 선정되어 1,0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단계로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500만원으로 증액되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회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 마을 주민 간 화합과 단결을 꾀하는 성과를 이뤘다.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각 마을의 특색을 살려 화단만들기, 꽃길조성, 환경정비, 상징물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협동정신을 길러주고 주민화합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고령화되고 소외된 마을들이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주민들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마을을 보다 잘 가꾸기 위한 주민 토론 문화가 형성되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아름다운 마을, 특색있는 마을, 와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로컬플러스

장수군, 군민의 장 후보자 접수

장수군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화합을 위해 제34회 군민의 장 후보자를 2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접수받는다.

시상부문은 문화체육장, 산업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등 4개 부문으로 후보자 자격조건은 지역주민 20인 이상의 연서나 관내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원소장, 읍면장, 출향 장수군 향우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다.

접수처는 군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군은 부문별 현지 확인과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온 지역의 숨은 일꾼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장수군은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군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와룡자연휴양림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공무원, 재난안전 네트워크단체 관계자, 물놀이안전요원 등 30여명은 물놀이 안전수칙과 수난사고자 발견 시 행동요령 등이 실린 홍보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토옥동계곡, 덕산계곡, 대론 요천, 연평 신기천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다.

군은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취약지역에 구명조끼, 로프 등 구조장비를 비치,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어르신들 건강 · 안전 챙긴다

경로당 269곳 에어컨 설치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예정

무주군은 관내 경로당 269곳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무주군은 관내 경로당 269곳 전체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은 혹서기 폭염 상황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이미 설치 돼있던 69곳을 제외한 200곳을 대상으로 2015년에 100곳, 2016년에 100곳에 설치했다.

무주읍 운교리 경로당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오면 시원하니까 마을 할머니들이 눈뜨면 이리로 모인다"며 "더운데 집에 혼자 있으면 더 힘들고 지치는데 시원한 데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해먹고 하니까 재밌고 좋다"고 전했다.

주방이 마련돼 있어 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 중 가스차단기 설치가 안 돼있던 209곳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차단기도 설치를 한다. 가스 안전차단기는 노인복지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청 사회복지과 박기훈 노인복지 담당은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식사와 간식 등을 조리해 드시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한다"며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넘치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반딧불복숭아 맛 보세요

고랭지 친환경농법 재배
맛 · 품질 · 안정성 최고

무주 반딧불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구입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무주반딧불복숭아 가격은 12~14과 한 상자에 1만 7천 원~2만 8천 원 선으로 각 읍면 사무소와 농가직거래,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www.mj1614.com)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무주반딧불복숭아는 무주군 설천면과 적상면, 무주읍 내도리 등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고랭지에서 생산돼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으며 맛과 향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기술연구과장은 "과육이 단단한 백도는 8월초, 부드러운 황도는 9월 중순까지 맛 볼 수 있다"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165농가(63.5ha)가 연간 920톤의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EM 농법 등 저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복숭아를 생산해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용진 대영아파트 동대표 선거 온라인투표로 실시

군 두 번째 모바일 투표

완주 용진 용진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스마트폰, PC를 활용해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했다.

완주군 용진읍 용진대영아파트(572세대) 입주민들이 스마트폰, PC를 활용해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공동주택 온라인 선거는 이서면 이노힐스아파트에 이어 완주군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 공동주택 대표자·임원 등의 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시스템를 활용하여 선거의 편리함과 공정성을 한층 드높였다.

군은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이용수수료와 현장지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며, 완주군선관위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성광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에서 2년에 한번씩 치르는 동별대표자 선거시마다 선거 종사위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무더위에 3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번 온라인투표 실시로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방문투표로 인한 입주민 불만 민원이 없어 선거로 인한 휴유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은 "온라인투표 서비스 아파트 단지 확대로 공동주택 대표자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정착되고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군, 목이버섯 유망 소득작물로 육성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신소득 유망 버섯인 목이버섯 신품종 농가 육성에 나섰다.

진안군은 준산간 지역으로 목이버섯 재배에 안성맞춤인 기후를 가지고 있어 7월부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목이버섯 '현유' 품종을 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10a 면적에 2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재배를 하고 있다.

목이버섯은 재배기간이 4~5개월로 주로 봄, 가을에 재배하고 있으나 이번에 보급된 국내육성품종은 생육온도가 25℃이상의 높은 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 탈색이 없고 품질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품종이다.

또한 식이섬유소 함량이 매우 높고 비타민D가 표고버섯의 20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서 칼슘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온기 여름 재배가 가능하여 추석명절을 겨냥한 목이버섯 생산량 조절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폐 영지버섯 하우스 후작물로 재배가 가능하여 하우스 활용도 높이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영화 소장은 "이번 목이버섯 실증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으로 판단되면 집중적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강화

완주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집중적 방문건강관리 및 폭염대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및 허약노인,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전문 인력이 직접방문 및 안부전화 등을 통해 폭염피해 예방교육과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폭염 해제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폭염주의보 발생 시 방문대상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응급조치 요령 등 폭염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폭염특보 등 기상 예보를 고려해 실외활동계획을 세워야하며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와 어린이, 야외근로자는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하이트진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홍보 앞장

제6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의 향토기업인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공장장 김구한)이 '즐거움에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는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홍보에 팔을 걷었다.

완주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주)는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하이트 병맥주 70만병에 축제홍보 보조 라벨을 부착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은 1989년 준공해 전북도민의 사랑속에 성장한 전북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완주군의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소외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불우청소년, 보훈가족을 돕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매월 1회 모악산, 대둔산, 하천 등의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며 다양한 기부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공식협찬사이자 전북대표 향토기업인 하이트진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삼례 신금리에 문 열어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에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22일 삼례읍 신금리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구 의원,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삼례)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축한 임대사업소는 3,021㎡ 부지에 610.4㎡의 사업장을 총 1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대사업장과 사무실, 부품 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농용굴삭기, 비닐수거기, 콩탈곡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밭농사와 벼농사에 필요한 35종 15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배양실도 설치하여 딸기재배농업인 등 필요 농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삼례, 봉동, 용진, 소양, 이서 등 서부지역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이와 경영비 부담 경감, 임대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2014년 구이에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 이전한데 이어 오늘 삼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로 농업인의 영농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며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농기계전담팀을 신설해 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신기종 농기계 확보와 운영인력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경찰, 확대간부회의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지난 21일 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파출소장 등 22여명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따른 경찰 비위관련, 경찰 지휘부의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분위기 쇄신의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성비 위 근절 특별대책, 음주, 비위, 갑질 행태근절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 신뢰회복과 조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내용의 회의였다.

한편 최성규 서장은 "공직자는 공사를 불문하고 항상 바른 자세를 보여 줄 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며, "청정 무주에서 절대 경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확립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